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K 의과학사업단 이 승 희

교육이라는 말이 있기 이전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있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더욱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됨에 따라 하나의 사회적 약속으로 '교육'이라는 말이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의미와 함의를 이루게 되었다. 교육이라는 말은 동양의 고전인 맹자의 「진심장상」에서 처음 나타난다. 즉, 군장에게 세 가지 참된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얻어서 그를 교육하는 것이 그 중의 한가지라고 하였다. 한자어로 교육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은 가르치고 기르다이다. 즉, 우리말 '가르치다'의 의미는 시비선악을 골라 판단하여 나쁘고 거친 것을 다듬어 착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르다'는 '길다'에서 나온 말로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며, 크게 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일정한 목표와 방향으로 이끄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교육을 뜻하는 말로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education'은 라틴어 e(out)와 ducare(lead)의 합성어로 학습자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소질 또는 잠재능력이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장 발전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pedagogy'가 있는데 라틴어 paidos(어린이)와 agogos(이끌다)가 결합되어 어린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어원을 생각해 볼 때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교수자가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학습자가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가에 그 중요성이 있다. 오늘날 모든 학문분야에서 바로 이러한 'learning'이 없는 'teaching'이 존재할 수 없고 의미 또한 없다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의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을 'teaching'하는 것에는 상당한 자신감과 know-how를 갖고 있을 것이며 그렇다고 자신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learning'할 수 있도록 하는 know-how를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학습능력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얼마나 고민하였는가?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닌 어떻게,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어느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라고 본다. 물론 의학교육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다고 본다. 과연 교수가 가르치는 행위가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고자 하는 목적의식과 동기유발을 어느정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인가?

배운다는 것, 즉 학습이란 교수자나 교과서(비디오, 시범, 실험)등의 정보가 학생들의 머

릿속으로 전달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존정보를 나름대로 새로운 정보와 결합시켜 지식을 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학습상황에서 나름의 자기 방식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결국 수업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이 자기조정적 학습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주도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주도성도 높아야 한다.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구성주의적 수업모형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개성을 갖고 있고 무한한 발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시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경험에 비추어 인지·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재구성하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PBL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잘 살릴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다. 학습자는 여러 지적인 활동을 통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힐 수 있으며, PBL 수업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수자가 제시할 내용과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미 형성된 개념체계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므로 선개념이 학습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John Dewey의 진보적인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진보적인 교육체제로의 변화는 자연과학 등에 있어서 실험실습교육을 강화시켰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임상실습은 이러한 ‘active learning’의 한 형태이다. 실험과 실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활동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습이란 학교교육에서 특정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직접적인 경험활동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실습을 지도할 때에는 실제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교육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즉 실제적인 장면에서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과학과 관련된 교과에서는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위해 실습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실습은 학습되는 사실이나 원리와 관련된 활동을 실제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창의성이나 표현능력을 자극시켜, 추상적인 개념만을 학습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교수학습지도과정에서는 실험과 실습 등 적절한 체험을 통한 학습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 천년동안 행해져 왔던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업이다. 바람직한 학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좋은 교수자가 있어야 하듯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